**1 애프터5로 숨 돌리기 (애프터5 : 오후 5시 이후=일이 끝난 후의 개인적인 시간)**

「더치페이•자작•2차 없음」…무엇을 말하는 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요즘 OL(여사무원)의 애프터5의 술 마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시거나 먹은 것은 자기 분만 내는 것. 이것은더치페이이지요. 자작이라는 것은, 자신이 마실 술은 자신이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차를 가는 등 여러 술집을 가지 않고, 한 곳에서 끝냅니다. 일이나 가사에서 해방되어, 저녁에서 밤에 걸쳐 짧은 시간 동안 적당히 술을 마시고, 숨도 돌리고 기분전환을 한 후 집에 돌아간다. 이러한 애프터5를 보내는 방법의 빈도는 20대 OL 기준 평균 1.6일이라고 합니다. 즉, 1개월에 6~7번은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일본의 젊은 OL은 술을 꽤 좋아하는군요.

**2 화장실 활용법**

예로부터 화장실은 「더럽다•냄새 난다」와 같은 이유로, 볕이 들지 않는 집 구석이나 떨어진 곳으로 쫓겨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에 따라 「더럽다•냄새 난다」라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지금은 아파트 등에서 화장실은 하나의 독립된 방으로서 당당히 한가운데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 잡지사에서, 남자의 있을 곳이라는 테마로 앙케트 조사를 한 결과, 샐러리맨이 집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진정 혼자가 될 수 있는 장소는 어딘가 하니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남자의 있을 곳」은 화장실인 것이군요. 또, 화장실과 현관을 보면 어떤 집인지 바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 활용법 (본래 목적 이외)

남성 여성

1위 신문/독서 – 21.0% 1위 화장/옷 매무새 정리 – 79.0%

2위 생각 – 15.0% 2위 옷을 갈아입음 – 23.0%

3위 흡연 – 12.0% 3위 흡연 – 6.0%

4위 옷 매무새 정리 – 11.5% 4위 신문/독서 – 5.0%

5위 옷을 갈아입음 – 10.0% 5위 생각 – 5.0%

6위 수면 – 6위 수면 – 1.0%

\*딱히 아무 것도 안 한다 – 45.0% \*딱히 아무 것도 안 한다 – 10.0%

**3 현대인과 수면**

최근 풍조는 「24시간 도시」라고 하여, 주야의 구별 없이 기능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것에 넘어가 우리도 밤새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보거나 하고, 편의점이 심야의 친구라고 하는 형국이라 점점 수면부족인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하루 수면 시간은 4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만, 보통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은 「백해무익」입니다. 「자는 아이는 잘 자란다」나 「미인은 밤에 만들어진다」 등의 말이 예로부터 전해져 왔듯이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마루에 누워 충분히 수면을 취한 후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건강의 기본입니다.

OL•여대생의 수면시간 – 6시간 24분

샐러리맨의 수면시간 부장 – 6시간 40분

과장 – 6시간 28분

일반 사원 – 6시간 37분

**4 단신부임과 자취 생활**

도쿄, 오사카에서 단신부임 생활을 보내는 20~60대의 비즈니스맨을 대상으로 생활습관이나 건강관을 물은 앙케트 조사에 의하면,

① 현재 생활에서 늘어난 것은? (복수응답)

• 외식 횟수 – 84.5%

• 편의점 이용 – 81.3%

• 자취 – 63.5%

② 건강면과 관련하여 (복수응답)

• 스트레스가 늘었다 – 52.8%

• 건강을 신경 쓰게 되었다 – 53.3%

• 건강에 자신이 없다 – 29.3%

③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

• 과로 – 41.3%

• 알코올 의존증 – 40.5%

④ 단신부임은 「좋다?」 「싫다?」

• 좋다 – 29.8%

• 싫다 – 69.8%

또 절반 이상의 사람이 향수병에 걸린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서 보내는 생활은 건강면, 정신면에 있어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를 펴고 마음대로 자취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아버지도 적지는 않다고 합니다.

**5 아름다운 얼굴 지향**

보통 첫인상은 6,7초 안에 정해진다고 말합니다. 즉, 첫 대면에서 명함을 교환하고 인사가 끝날 무렵에는 상대에 대한 인물 평가가 이미 끝났다는 말이 됩니다. 그 주요 요소로는 복장•얼굴 표정과 동작이 55%. 목소리나 음질•말투나 속도 등이 38%. 회화 내용은 고작 7%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오감을 구사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만, 시각에 의한 정보가 8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요. 미안(美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물론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만, 「호감을 주는 얼굴」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젊은 남성 사이에서는 미안, 특히 눈썹과 눈을 중심으로 한 화장이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리사이클(재활용)**

폐기물이 되는 양을 되도록 줄이고, 폐기물을 자원으로 하여 재활용하는 것. 그것이 리사이클입니다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예를 들면, 요구르트를 살 때, 병•종이컵•플라스틱 팩 중 어느 것이 좋은지 고민한 적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씻어서 안 타는 쓰레기로 해야 되는지, 씻지 않고 타는 쓰레기로 해야 하는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물건을 살 때도 버릴 때도 정말이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리사이클 패션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것은 헌 옷을 재생하거나 새것을 일부러 워싱하여 입는 것으로, 프랑스 파리 컬렉션의 인기 디자이너들이 진짜 헌 옷을 세탁, 수선하여 「신품」 옷을 디자인한 것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평상복으로서 헌 옷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고 있습니다.

**7 마이 홈(MY HOME)**

일본인이 자기 집을 소지율은 62%입니다. 도도부현(都道府県) 별로는 가장 많은 곳은 토야마 현으로 85%, 가장 낮은 곳은 도쿄도로 41%입니다. 젊은 샐러리맨에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빨리 내 집을 가지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자기 집•마이 홈, 이것이 일본인의 「꿈」인 것이군요. 이 꿈을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악착같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이자가 싼 나라입니다. 특히 자기 집•마이 홈을 구입할 때는 국가나 은행에서 대우해 줍니다. 예를 들면, 부자 대출. 이것은 자신이 정년퇴직 등으로 더 이상 변제할 수 없게 될 경우는 아들이 뒤를 이어 지불을 이어가는 주택 대출입니다. 설령 외국인으로부터 토끼 우리, 성냥갑 같은 말을 들어도 자기 집을 가지고 싶다는 것이 일본인의 평생의 꿈인 것입니다.

**8 패션**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아도, 길을 걷고 있어도 눈에 자주 들어오는 단어가 「패션」입니다. 패션이란, 「의복 형태 등의 유행」이라는 의미입니다만, 한국인도 일본인도, 특히 여성은 유행에 민감합니다. 그럼 유행은 누가 어디서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세계적으로 패션으로 유명한 파리나 밀라노 컬렉션에서는, 항상 반년 앞선 신작 패션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근부터 유행의 파도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행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새로운 패션을 걸치는 것은.. 글쎄요? 역시 지금은 개성화 시대이므로 자신의 개성+유행으로, 개성에 중점을 두고 그것에 조금 유행을 가미하여, 옷을 입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9 스포츠와 나**

「스포츠는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누구에게 물어도 이구동성으로 대답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일본의 스포츠 메이커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뉴 스포츠라고 합니다. 뉴 스포츠란 종래의 스포츠의 룰이나 도구를 변형시켜, 누구나 손 쉽고 싸게, 연습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래에는 한국에서도 개발되거나 수입하거나 해서 뉴 스포츠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샐러리맨이 자주 하는 스포츠 베스트 10

1 골프 – 60.0% 6 스키•스케이트 – 5.0%

2 야구•소프트 볼 – 10.7% 7 낚시 – 1.3%

3 조깅 – 8.8% 8 등산•하이킹 – 0.6%

4 테니스 – 7.5% 9 해양 스포츠 – 0.6%

5 수영 – 6.3% 10 그 외 – 8.2%

**10 갬블**

일본에서는 남자가 4명 모이면 마작을 한다고 하고, 한국에서는 여자가 3명 모이면 화투를 한다고 할 정도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갬블은 인간의 생활에 침투해 있습니다.

일본에는 매우 도박성 높은 「빠칭코」라는 대중오락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빠칭코 의존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빠칭코 의존증이라는 것은 알코올 의존증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빠칭코를 안 하면 못 견디는 증상으로, 특히 전업주부 사이에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빠칭코 업계가 주부로 타깃을 집중하여, 고객층 개척에 힘쓴 결과라고 합니다. 한 앙케트 결과에 의하면, 빠칭코 고객의 1.2%는 하루에 10만엔 이상 벌고, 2.2%는 10만엔 이상 잃는다고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이군요.

**11 아르바이트의 옳고 그름을 둘러싸고**

포인트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었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용돈을 받는 것은 썩 내키지 않고, 가지고 싶은 물건도 자유롭게 사고 싶다.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가계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경험을 쌓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대학생의 본분을 생각하면 본말전도라고 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생활이 어려워서 안 된다는 고생하는 학생은 둘째치고, 공부에 조금 더 힘을 쏟아주었으면 한다. 국가의 성장, 사회의 발전, 가정 윤리 확립은 모두 다음 세대를 리드할 그들의 두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에.

본문

아르바이트

어느 시대나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상이 풍요로워진 지금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실태를 말하자면, 상당히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르바이트의 직종이다. 일찍이 대학생의 일이라고 하면, 가정교사가 압도적이었다. 지금도 적지는 않지만 해가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고, 그에 비해 증가한 것은 서비스업. 카페나 레스토랑 웨이터, 웨이트리스, 24시간 영업하는 레스토랑이나 편의점도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서 인기가 높다. 또 예전에는 급여가 좋은 공사현장이나 여름방학•겨울방학 동안의 호텔 아르바이트도 레저를 겸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았지만, 육체적으로 힘들다던가 대우가 좋지 않은 일은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나저나 직종이 바뀌면 수입도 바뀐다. 도쿄에서는 평일 아르바이트는 시급 1,000엔 이상의 일이 아니면,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 시급으로 일하면 샐러리맨의 초봉보다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회사 근무보다, 프리터로 맘 편히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아무튼 공부를 잊고, 아르바이트에 열중하는 대학생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12 학력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다**

포인트

능력이 있는 자가 위에 서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암묵적 양해로 삼아온 룰이다. 하지만 능력이라고 해도 인간에게는 여러 분야가 있다. 육체적 능력을 비롯하여 지적 능력, 음악적 능력 등등. 학교 교육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력사회의 풍압에 입시 대책 중심에 치우쳐진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본문

과열되는 교육열

셋방을 얻어 수도권의 사립대학에 다니는 신입생이, 입학할 때 드는 비용이 200만 엔을 넘고 있다. 그 이후에도 매달 10만 엔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 생활비 안에는 우선 방값, 도쿄에서는 다세대를 이용하는 사람이 64%, 아파트는 13%, 불경기라고 해도 싼 기숙사를 이용하는 사람은 13%로 적다. 그 외, 자택, 기숙사 이외의 학생은 매월 3만엔 정도 식비가 들고, 절약하고 싶은 것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게 이어 절약하고 싶은 것은 전화비. 휴대폰, PHS는 약 70%가 이용하고 있는데 설치형 전화도 포함하여, 전화비는 평균 7500엔 정도. 내구 소비재 중에는 컴퓨터의 소유율이 62%로, 어찌됐든 부모의 금전적 부담이 크다. 대부분의 부모는 사전에 교육 대출 등의 적금을 하고 있다지만, 그래도 가계를 압박하는 현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부모 입장에서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아르바이트도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가 하면, 7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1개월 분 아르바이트 수입은 3만 엔 정도. 현대는 경쟁사회이다. 능력이 있으면 타인보다 조금은 앞서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학력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 노력한 자가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는 부모로서는 잠자코 있을 수 없는 문제이다. 교육에는 돈이 든다. 지금은 교육에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 성적 순위가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도 모른다. 「부모의 마음, 자식은 모른다」. 부모에게는 정말 머리 아픈 문제이다.

**13 우정과 애정, 어느 쪽을 고를 것인가**

포인트

「우정과 애정, 어느 쪽을 고를 것인가」라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결혼 전이라면, 대부분의 남성은 애정보다 우정이라고 대답하고, 대부분의 여성은 우정보다 애정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그것은 남성은 사교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비해, 여성은 가정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인생의 1/3이나 차지하는 학생 시절에는 다양한 그리운 추억이 쌓여 있다. 숭고한 장래 희망을 이야기했던 적도 있을 것이고, 풋풋한 사랑의 감정을 고백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상대이기도 한 친구에 대해 생각해 보자.

본문

친구

「끼리끼리」「근묵자흑」 등과 같이 「친구」와 관련된 속담은 많이 있다. 우정이라는 것이 애정보다 깊은가 아닌가는, 철학자에게 맡겨두기로 하고, 사적인 것이나 고민 등을 상담할 상대를 말하자면, 그것은 「친구」이다. 가정이라는 애정의 끈으로 연결된 단위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급할 때는 친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돈 문제가 되면 더 명확하다. 부모형제라도,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은 남하고 한다」고 하는 일본에서는, 역시 믿을 수 있는 건 「절친」일 것이다. 한 명이라도 좋으니 훌륭한 친구를 두고 싶은 법이다. 오늘은 「친구」를 테마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14 고령화 사회와 핵가족**

포인트

아직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가족은 생활공동체로서 기능을 다해왔지만 20세기에 들어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급속히 진행되어, 시골에 양친을 두고 젊은이는 도시로 나가 가정을 가지게 된 「핵가족」이 급속히 늘었다. 이렇게 핵가족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다. 한편, 맞벌이 부부인 관계로, 아이를 돌봐주기 위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해서 같이 사는 가정도 있다고 한다. 예전과는 다른 가정관 속에서, 장래 어떠한 노후 생활을 보내면 좋을 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문

골드 플랜

일본인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5%입니다. 현재 일본의 총인구가 1억 2,600만 명이므로, 단순 계산해도 1,900만 명의 노인이 생황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2020년에는 25%, 즉 일본인 4명 중 한 명은 노인이라는 것이며, 노인의 생활이란, 소비한다•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를 실버 산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 100세 이상의 초 노인이 1만 명 이상에 달해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골드 플랜을 발표, 각 부처에서 다양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실버(은)의 위는, 즉 골드(금)라는 것이군요.

**15 목욕 문화에서 보는 국민성**

포인트

외국인이 일본을 소개할 때,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나오는 것이 「남녀혼욕」이다. 이것은 좀 오해가 지나친 듯한 느낌이 든다. 습기가 많고, 게다가 화산 덕분에 온천이 솟아나는 조건 하에, 일본은 일찍이 온천문화가 번성했다. 좁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것보다도, 대자연과의 조화를 느끼며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것인가. 최근의 온천 붐에 편승하여 「혼욕탕」이 소문을 타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상업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본문

목욕 습관

미국에 해외 청년 협력원의 일원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러 갔던 여자 대원이 1개월에 1번 밖에 목욕을 못 한다(그 정도로 물이 없는 것이다)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매우 놀란 적이 있다.

「목욕」 문화에 있어서는 일본의 수준이 세계 제일이지 않을까. 그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프랑스조차도 중세시대는 별로 목욕을 하는 습관이 없어, 체취를 없애기 위하여 향수가 발달했다고 한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체취가 강하다. 그 점에 있어서 동양인은 복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건 그렇고, 탕에 들어가는 방식도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에서는 욕조를 거품으로 가득 채우고 벅벅 씻은 다음, 샤워로 흘려 보낸다. 그리고 나체는 극히 사적인 부분이다. 만약 미국에서 공중목욕탕을 차리면, 호모 사건이 일어나서 큰일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일본은 화산 열도로, 예로부터 온천 문화가 발달하여 원숭이도 온천에 몸을 담글 정도이다. 일본인은 매일 목욕을 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본과 한국의 목욕 문화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6 남성에게 많은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현상**

포인트

인간관계가 귀찮고, 혼자서 틀어박히면 정신적으로 안정되는 상황을 히키코모리라고 하며, 뒤바뀐 낮과 밤•밖에 나가지 못한다•동세대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섭다•집단 속에서 압박감과 긴장을 느끼는 등의 특징이 있다.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나 졸업 후에도 취직하지 않고 집에 있는 젊은이 등도 이에 속하며, 7할은 남성이라고 한다. 배가 불렀다, 게으름 피우고 있을 뿐이라고 보여지기 쉽지만, 당사자는 그 상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고통 받고 있다. 현재, 일본 전국에 50만 명은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사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

본문

등교 거부 문제와 사회 복귀

비행을 일삼다 퇴학 처분을 받았다. 집이 가난해서 학교에 나가지 못 했다. 가수가 되고 싶어 집을 나와 도쿄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레슨을 받고 결국 오디션에 합격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저마다 원인 결과의 차이는 있지만, 우울증과 같은 상태에 빠져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후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 찾아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왔다. 하지만 히키코모리는 마음을 닫고 타인과의 연대를 피해버리기 때문에, 본인이 사회에 나갈 용기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어쨌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등교 거부는 늘어나고 있고, 초등학교조차 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할 것이며, 또 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등학교에 가지 못한 사람을 받아주는 서포트 학교라는 것이 있지만, 학력 우선 사회에서는 결국 취직하기가 어렵다. 어른이 되어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일도 없는 사람이 앞으로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17 어려운 여대생의 사회진출**

포인트

예전에는 단기대학에 다니는 여대생이 공부하는 것은, 취직하여 곧바로 좋은 상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라고 일컬어졌으며, 여자가 4년제 대학에 다니는 것은 이상한 시선으로 보이던 시기도 있었다. 그런데 단기대학 졸업으로는 취직이 어려워져, 4년제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단기대학은 점점 학생이 줄어 4년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해졌다. 그리고, 지금은 능력 없이는 취직이 더 어려워져서 결혼에 대한 의식도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여대생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나 직장에서의 남녀 불평등 등은 아직 전부 바뀌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이유로, 이번에는 여대생의 사회진출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자.

본문

여대생

예전에는 유행은 20대 여성으로부터 퍼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라고 해도 지장이 없었다고 생각되지만, 요즘은 10대, 특히 고등학생이 주목의 대상이 되었으며, 수험 준비로 바쁠 터인 고등학생이 문화•유행의 발신원 등으로 불리고 있다. 그 덕분에 ‘「여대생」은 이제 아줌마 취급’이라고 말하면 엄청난 반감을 살 것이다. 아마도 그녀들은 자립된 여성이 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건 그렇고 버블 경제의 붕괴 이후,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취직 빙하기 속에서, 여대생의 취업활동은 매우 힘들다. 한 때는 대기업의 취업 면접에서 「당신 같이 아가씨 학교(자산가나 명문가의 영애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역사와 전통이 깊으며 규칙이 엄격하다.) 나온 사람이 정말 일할 수 있어요?」나 「여기서 일하게 되면, 사회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교육해드리죠.」 등, 심한 말을 들은 사람도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말을 한 사람은 물론 문제지만, 어딘가에 그런 현실이 적잖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인식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여학생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부터 취직 지도를 하는 대학 측도 생겨났으며 자격증 취득이나 취직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 도쿄에 신설된 모 사립 대학은 매일 지각이나 차림새를 체크, 기업 등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여는 특별강의 때는 학생에게 교복을 입히는 등, 고등학교의 연장이라고 생각될만한 교육을 시작했다. 그런 대학을 필요로 하는 학생도 있다는 것이므로 그건 좋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대학 측을 움직이게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말이기도 하다. 사회가 대학생에게 내린 평가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18 인간은 예지능력을 갖고 있다**

포인트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없다. 신기한 것은 꿈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매일매일 스토리를 만들어 주고, 덤으로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준다는 것이다. 더 신기한 것은 현실의 일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전에 꿈에서 본 장면과 같다고 하는 체험을 하였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하다. 또, 처음 온 장소인데 뭔가 그리운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것은 언젠가 꿈 속에서 가본 적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예로부터 「꿈은 예지몽」 이것은 인간의 예지능력을 알아 맞췄다고도 할 수 있겠다.

본문

1 후지산, 2 매, 3 가지

인간은 꿈을 꾸는 동물이다. 이 꿈에 대해서는 고금동서에 걸쳐 여러 설이 있으며, 또 꿈의 내용에 따라서는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지역도 있다. 일본에서는 하츠유메(첫 꿈)이라고 하여, 새해 처음으로 꾸는 꿈에 대하여 운수가 좋은지 나쁜지 말하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1 후지산, 2 매, 3 가지」가 운수가 좋은 꿈 베스트 3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것은 에도 시대에 높고 비싼 것을 세 가지 든 것일 뿐이다. 후지산은 높은 산. 매는 높이 날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가지는 에도 시대에 하우스 재배(비닐이 아닌 종이로 만든 하우스)가 시도 되어, 장군 등에게도 바쳐졌는데, 이 “가지”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런 걸로 운세가 좌우되는 건 말도 안 된다만, 아무튼 한 해의 시작은 기분 좋은 꿈을 꾸고 싶은 법이다.

**19 담배는 백해무익**

포인트

남성의 흡연율이 줄고 있는 것에 비해, 여성의 흡연율이 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흡연자의 절대수를 따지면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전통적인 유교 정신이 있는 일본이나 한국에서 「여성의 흡연」이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이미 담배가 폐암의 주요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어, 「혐연권」이 주장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본문

여성의 흡연

잘 생긴 배우가 겨울 바다에서 코트의 깃을 세우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 영화 속 흔한 한 장면이다. 일본에서는 예전에는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상상치도 못할 일이었지만, 지금은 카페에 젊은 여성이 4,5명 모여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는 것이 당연한 광경이 되었다. 이것을 좋게 볼지, 아닐지는 개개인의 견해이지만, 다만 여성의 흡연에 관하여 말하자면, 임신 중에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기형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래 인디언의 흡연으로부터 시작된 담배이다만, 애연가•혐연가, 양 쪽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20 IT 혁명**

포인트

2000년의 유행어 대상에 뽑힌 단어 「IT 혁명」. 정부의 PR 효과도 있어서 (수상이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한 일이 오히려 선전이 되었다.) 순식간에 퍼졌는데, 늦은 인터넷 접속 고속화나 고액의 이용요금 등 아직까지 세계시장에 뒤처져 있다. 그건 그렇고 이건 대체 어던 이점이 있는 것일까? 주변을 보면 게임에 열중하거나, 직접 말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등, 아무래도 사회로부터 동떨어져 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교육평론가 등이 한마디 할 것 같은 분위기도 있다. 하지만 일본이 21세기에 발전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IT 혁명」에 대하여 검증해보자.

본문

인터넷 체험

BS 디지털 방송의 시작이나 휴대 전화를 사용한 인터넷 이용이 보급되는 등, 「IT 혁명」에서 뒤처졌던 일본이지만, 컴퓨터가 없어도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 앞으로 마련되어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럼 대체 어떤 이용 방법이 있는 것일까.

•편리한 인터넷 체험

서점에 가도 원하는 책을 좀체 못 찾겠다. 그 때 발견한 것인 인터넷 서점. 배송료는 들지만, 전철 타고 사러 갔다고 생각하면 되고, 시간도 절약되어서 일석이조. 회사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수령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텔레비전에서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처음 보는 선수가 나오면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BS디지털 방송이라면 버튼 하나로 서수 프로필, 기록 등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출신지가 같은 걸 알면 응원에도 힘이 들어가겠죠.

•인터넷, 흑흑(ㅠㅠ) 체험

남자친구 생일에 갑자기 상사로부터 잔업을 요구 받았다.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지만,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대답에 싸움으로 번졌다. 그날 밤 피곤에 지쳐 집에 돌아오니 메일이 들어와 있었다. 「이제 됐어」라는 메시지에 더 침울해졌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생각해보니 「이제 됐어」라는 말은 「용서해 줄게」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때, 남자친구로부터 모닝콜. 뭘 밤새 고민하고 있었는지. 아아, 착각!

**21 백문이 불여일견**

백문이 불여일견 - 이야기를 몇 번씩 듣는 것 보다 한 번 자신의 눈으로 보는 편이 더 잘 알 수 있다.

비슷한 속담

•말보다 증거 – 말만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고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말.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 다른 사람 말 듣는 것보다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는 것.

본문

더치페이는 구두쇠인가?

•이것은 몇 년 전, 국비로 일본의 한 대학원에 유학한 여성 공무원이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전문분야(정원학과)를 더 갈고 닦기 위해, 일본에 가서 연구할 것을 명 받아, 유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일본에는 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척 불안했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희망하는 대학원에 연구생으로 입학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여 몇 주가 흘렀을 때, 담임 조교수로부터 「오늘 밤 당신 환영회 겸 친목회를 열 거니까 같이 갑시다」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친목회는 작은 스낵 바를 통째로 빌려서 같은 연구실 학생 15명 정도가 함께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정말 즐거운 환영 친목회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친목회가 끝나고 돌아갈 때가 되어 「오늘은 정말 잘 먹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라고 감사를 표하니 「아뇨, 별 말씀을. 오늘 회비는 5천엔입니다」라고 말해서, 등골이 오싹해져 취기도 가셨습니다. 제 환영 친목회라고 들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사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참가자 모두가 더치페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치페이 쇼크에 빠져 식사나 커피 권유를 받으면 곧장 지갑 속을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22 성질이 급하면 손해를 본다**

성질이 급하면 손해를 본다 – 성질이 급하고 쉽게 다투면 실수하거나 냉정한 판단을 못 하고, 조화를 해쳐 결국엔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는 의미.

비슷한 속담

•서두르는 거지는 동냥이 적다 – 거지는 다른 무리보다 서둘러 많이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반감을 사서 받을 것도 못 받거나 적게 받게 된다는 의미.

•Haste makes waste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망친다) –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허둥대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는 의미.

본문

성질이 급한 사람

낚시가 취미인 사람은 많아, 일본에는 낚시 인구가 2,3천만 명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 태반은 남성이므로 엄청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일본은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강이 많은 나라이므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낚시가 취미인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만, 그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기다리는 시간의 한계는? 남성 여성

① 약속 시간이 지난 것을 기다린다 17분 47초 17분 1초

② 화장실에 줄 서서 기다린다 4분 46초 5분 3초

③ 공중전화에 줄 서서 기다린다 4분 23초 4분 11초

④ 현금 인출을 위해 줄 서서 기다린다 5분 55초 6분 17초

⑤ 식장에서 줄 서서 기다린다 12분 31초 14분 21초

⑥ 버스나 전철을 기다린다 10분 3초 9분 43초

⑦ 택시를 기다린다 13분 19초 11분 48초

**23 자화자찬**

자화자찬 –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거나 자랑하는 것.

비슷한 속담

•우리집 된장 – 자기 집에서 만든 된장이 맛있다고 자랑한다. 즉 자기를 자랑하는 것.

•All his geese are swans (그 녀석의 오리는 다 백조이다)

본문

자기 투자

세일즈맨의 기본은 「품질을 팔기 전에, 먼저 자신을 파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그것을 파는 세일즈맨이 상대의 맘에 들지 않으면,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상대의 맘에 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도 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 이것은 비단 세일즈맨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기자신의 건강•교양•미용 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건강하고 교양 있으며 아름답고 다른 사람에게 인기 있기를 원하는 법입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쓰는 것, 즉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자기 투자라고 합니다.

•휴일 자기 투자 베스트 10 •앞으로 해보고 싶은 자기 투자 베스트 10

1. 골프(코스) 1. 수영

2. 골프(연습) 2. 콘서트•연극 관람

3. 미술관•박물관 3. 컴퓨터•워드 프로세서 공부

4. 수족관•동물원 4. 온천 탐방•케어 하우스

5. 비즈니스 서적 구독 5. 사외교류활동

6. 친구와의 커뮤니케이션 6. 외국어 공부

7. 영화감상 7. 운동

8. 교양문학서 구독 8. 자격증 취득 공부

9. 스키 9. 테니스

10. 업계 관련 잡지(서적) 구독 10. 유학해외연수•시민대학 등 수강

**24.** [**우는**](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C%9A%B8%EB%8B%A4)[**얼굴**](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C%96%BC%EA%B5%B4)**에** [**벌**](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B%B2%8C%EB%8B%A4)**(**[**설상가상**](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C%84%A4%EC%83%81%EA%B0%80%EC%83%81)**)**

[우는](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C%9A%B8%EB%8B%A4) [얼굴](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C%96%BC%EA%B5%B4)에 [벌](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B%B2%8C%EB%8B%A4) – 울고 있는데 벌이 와서 쏜다는 것으로, 재난이 겹친다는 의미.

비슷한 속담

•약해진 찰나에 천벌 – 불운에 불운이 겹친다는 것.

•Misfortunes seldom come alone - 불행은 혼자서 오지 않는다는 의미.

본문

약은 무섭다?

「[약해](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C%95%BD%ED%95%98%EB%8B%A4)(약에 의한 (피)해) 에이즈」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에이즈는 본래, 성행위 등에 의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에이즈 바이러스(HIV)가 감염하면서 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증입니다만, 일본에서는 오염된 수입 혈액 제약에 의한 치료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가 매우 많은 것에서 「[약해](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C%95%BD%ED%95%98%EB%8B%A4) 에이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약 5,000명의 혈우병 환자가 있습니다만, 이 중 4할, 약 2,000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혈액을 수입한 제약회사와 판매를 허가한 나라(후생성)을 상대로 재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병을 고칠 생각으로 수혈한 것이 원인이 되어 다른 병, 그것도 에이즈에 걸리게 된 것은 실로 「설상가상」이지요.

**25. 좋은 일은 서둘러라**

[좋은](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C%A2%8B%EB%8B%A4) 일은 서둘러라 – 좋은 일은 바로 실행에 옮기라는 말.

비슷한 속담

•생각한 날이 곧 길일 – 무엇을 하려고 결의한 날이 좋은 날이므로, 그 결심이 바뀌기 전에 실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

•Procrastination is the thief of time - 뒤로 미루는 버릇은 시간의 도둑이다

본문

여유 있는 인생

•여유도 테스트

1.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도, 즐겁게 살 수 있다면 된다고 생각한다.

2. 리더가 되어 고생하는 것보다, 사람을 따르는 편이 편하다.

3. 일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취미나 레저에서 존경 받으면 된다.

4. 수입은 별로 좋지 않아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5. 가족과 회사를 위해 희생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6. 가족이 잘 되기 위해 자신의 기분을 자제하는 편이다.

7. 그룹 안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

8. 무리라고 생각하는 계획은 세우지 않는다.

9. 때때로 손목 시계를 하지 않을 때도 있다.

10. 친구나 동료로부터 상담을 많이 받는 편이다.

우선 위의 10개의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YES가 8개 이상인 사람은, 여유도가 높고 장수할 수 있는 타입이며, YES가 3개 이하인 사람은 여유도가 낮고, 인생을 그다지 즐기지 못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떤 타입입니까?

「여유작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느긋하게 안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눈이 어지러울 정도의 속도로 변해가는 현대의 스트레스 사회에서, 여유작작한 생활이라는 것은 꽤나 어려운 것입니다만, 장수하기 위해서라도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네요.

**26. 개구리 새끼는 개구리 (부전자전)**

개구리 새끼는 개구리 – 올챙이는 형태는 다르지만 성장하면 개구리가 되는 것에서, 아이는 부모를 닮는다는 의미.

비슷한 속담

• 솔개 새끼는 매가 못 된다 – 평범한 사람의 아이는 평범한 인물이고, 비범한 사람의 아이는 비범하다는 의미.

•Like father, like son - 「그 아버지에 그 아들」과 같은 말.

본문

대물림

우리는 이 세상에 첫 울음 소리를 내기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를 부모에게 물려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친의 뱃속에 있었을 때도 있는가 하면, 아이일 때, 어른이 되어서 물려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물림에도, 얼굴•체격•목소리•언행•성격 등 천차만별로 하나하나 세다 보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딘가가(무언가가) 부모와 닮았으면, 「부전자전이네」라던가 「피는 못 속이네」라는 말을 듣습니다.

**27. 1일1선(하루에 한 번 선행을 하라)**

1일1선(하루에 한 번 선행을 하라) –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상관 없으니 하루에 한 번 이상 선행을 하라는 의미.

비슷한 속담

• [행운](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D%96%89%EC%9A%B4)은 [누워서](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B%88%95%EB%8B%A4) [기다려라](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A%B8%B0%EB%8B%A4%EB%A6%AC%EB%8B%A4) – 인과는 운에 의한 것이며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안달하지 말고 때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말.

•일찍 일어나면 3문의 이익 – 아침 일찍 일어나 근면하게 생활하면 돌아오는 이득이 있다는 것.

본문

자원봉사

최근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흔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경우는 삼풍 백화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여러 형태의 자원봉사자들이, 피해자나 구조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아 무언가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한정된 활동은, 진짜 자원봉사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자원봉사 선진국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고등학교나 대학 입학•졸업 시험에는 반드시 「자원봉사 점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미국에 유학하던 학생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말았습니다. 재판소로부터 “벌금을 내시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가난한 유학생이므로 그런 돈은 바로 못 낸다고 대답하자, “그럼 1주일 동안 자원봉사를 하시오”라는 말을 들어, 1주일 간 국도를 따라 쓰레기를 줍거나, 잡초를 뽑는 등의 활동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일본의 속담에 「1일1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하루에 한 번 이상 선행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원봉사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때뿐만이 아니라 꾸준히 착실히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8. 불에 기름을 붓다**

불에 기름을 붓다 – 불의 기세를 더욱 세게 하는 것. 말 그대로 화가 난 사람을 더욱 화나게 한다는 등의 의미의 예로 사용된다.

비슷한 속담

•자는 아이를 깨우지 말라 – 얌전히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면 울어서 곤란해진다. 말 그대로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말.

=Don’t wake a sleeping dog. (자는 개를 깨워서는 안 된다)

본문

월요병

아래의 신문기사는 한 제약회사의 「위통」과 관련된 앙케트 결과입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일본 남성의 위통의 주요 원인은 스트레스로, 월요일에 아픈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샐러리맨의 경우는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위통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라면 더 퍼센티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의 해소법입니다만, 첫 번째의 스포츠는 문제가 없지만, 두 번째의 음주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통의 원인의 42%가 과음인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라며 술을 마시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비즈니스 맨 대상 앙케트 조사

•위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위통이 발생하는 요일은? •스트레스 해소법은

1. 스트레스 1. 월요일 1. 스포츠

2. 과음 2. 화~목요일 2. 음주

3. 과식 3. 금요일 3. 수면을 충분히 취한다

4. 피로 4, 휴일 4. 입욕

5. 과도한 흡연

**29. 지진•천둥•화재•아버지**

지진•천둥•화재•아버지 – 무서운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재난과 관련된 속담

[갈수록](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A%B0%88%EC%88%98%EB%A1%9D) [태산](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D%83%9C%EC%82%B0) – 악조건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

재해는 [잊어](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C%9E%8A%EB%8B%A4)[버릴](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B%B2%84%EB%A6%AC%EB%8B%A4) [무렵](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B%AC%B4%EB%A0%B5)에 ([다시](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B%8B%A4%EC%8B%9C)) [찾아온다](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C%B0%BE%EC%95%84%EC%98%A4%EB%8B%A4) – 재해는 잊을 무렵에 일어난다. 평소에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본문

무서운 것

「지진•천둥•화재•아버지」 이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속담으로, 무서운 것의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진과 천둥은 재해이며, 현대 과학의 정수를 구사한다 하여도, 그것이 무력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95년도의 고베 대지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진은 언제•어디서•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일본인은 지진에 대한 만성적인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화재는 인재(人災)에 의한 원인이 대부분입니다만, 일본의 경우, 예전에는 목조 건물이 많았던 탓에, 바람이 강한 날에 화재가 일어나면 큰 불로 번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밤이 되면 「불조심! 성냥 하나가 화재의 원인」이라며, 당번인 사람이 큰 소리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무서운 아버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별로 무섭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만, 당신의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30.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오래 못 간다**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오래 못 간다 – 나쁜 짓을 하여 얻은 돈은 낭비하기 쉬워 남지 않는다는 의미.

•돈과 관련된 속담

돈은 하늘 아래 [돌고](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B%8F%8C%EB%8B%A4) [도는](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B%8F%8C%EB%8B%A4) 것 – 돈은 혼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계속하여 돈다. 빈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도 언젠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한다.

돈 [떨어지면](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B%96%A8%EC%96%B4%EC%A7%80%EB%8B%A4) [정분](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C%A0%95%EB%B6%84)도 [끊어진다](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B%81%8A%EC%96%B4%EC%A7%80%EB%8B%A4) – 금전에 의해 성립된 관계는 돈이 끊기면 무너지기 마련이다.

본문

용돈

돈이라는 것은 신기한 생물?이라, 「돈은 하늘 아래 돌고 도는 것」이라는 속담에서도 말하듯이, 끊임없이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돌고 있습니다. 1개월 간 착실히 땀 흘려 일해 받은 급료도, 어느 사이엔가 날개가 돋아나 새처럼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에 비해 수십억, 수백억의 뇌물이나 비밀 자금으로, 돈 관리나 사용처에 곤란을 겪고 있는 모 정치가를 원망스럽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만,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오래 못 간다」고 자신을 위로하며, 다음 월급날을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균적인 샐러리맨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용돈은 누가 정하나?

1. 아내와 상의 44.2%

2. 자신이 정한다 39.5%

3. 아내가 정한다 9.5%

**31. 여유 있는 도시 공간을 즐기다**

포인트

스트레스는 특히 분주한 도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걸리기 쉬운 정신적인 병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여유가 없고 계속 끊임 없이 해야 할 일에 쫓기며,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일을 요구 받고, 상사로부터는 돈으로 묶인 관계임에도 꽥꽥 잔소리를 들어가며 신경이 깎여나갈 뿐이다. 참고 참다 보면 결국에는 머리가 원형탈모증이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심부전으로 덜컥 죽는 경우도 있다. 스트레스를 쌓아두면 폭발한다. 어떻게든 발산하지 않으면….

본문

당신의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습니까? O를 해 주세요.

1. 감기에 잘 걸리고, 잘 낫지 않는다.

2. 갑자기 숨이 막히는 일이 있다.

3. 고동이 격해지는 일이 있다.

4. 요즘 머리가 상쾌하지 않다.

5. 눈이 쉽게 피로하다.

6. 현기증이 나는 일이 있다.

7. 일어설 때 현기증이 날 것 같은 경우가 많다.

8. 자주 입 속이 헐거나 문드러진다.

9. 좋아하는 것이라도 먹고 싶은 맘이 들지 않는다.

10. 설사나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11. 어깨가 자주 결린다.

12. 쉽게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13. 무언가를 하면 쉽게 지친다.

14.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지 못 한다.

15. 쉽게 잠 들지 못 한다.

16. 인간 관계가 귀찮다.

17. 초조할 때가 많다.

18. 알레르기가 있다.

19. 요즘 체중이 줄었다.

20. 꿈을 꾸는 일가 많다.

채점

O의 수 당신의 스트레스 지수

0~3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

4~8 가벼운 스트레스 상태

9~16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 상태

17~20 치료가 필요한 단계

**32. 개인주의와 가족주의**

포인트

….좋아서 결혼하고, 싫어져서 이혼한다. 자신이 행복한 것이 가장 우선이고, 다른 사람한테 폐 끼치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도 그럴 것이 시대가 변한데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도 이혼했지만 텔레비전에서 보면 오히려 행복해 보여. 그리고 여자라고 해서, 일부러 무리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필요는 없어….

이것은 한 여성의 고백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걸린 「개인주의」라는 이름의 현대병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문

당신의 개인주의 지수를 체크!

•해당하는 부분에 O를 해 주세요.

1.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일은 거의 없다.

2. 아침, 다른 사람과 인사하는 일이 거의 없다.

3. 교통사고를 목격해도 그대로 지나친다.

4. 도로에 아무렇지도 않게 침을 뱉는다.

5. 라이벌의 실패를 재미있어한다.

6.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7. 영화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과자를 우걱우걱 먹는다.

8. 장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9. 친척과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다.

10. 인간관계가 번거롭다.

11. 이사하는 날에는 다른 약속을 잡는다.

12. 사적인 일은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13.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은 몇 명 있어도 상관 없다.

14. 맘에 안 들면 바로 이혼해도 상관 없다.

15. 형제는 결국 타인이라고 생각한다.

16. 결국 기댈 수 있는 건 돈이다.

17. 결코 다른 사람한테 쏘지 않는다.

18.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만 도망친다.

진단결과

O의 수 개인주의 지수

1~4 집에서 쉴 것

5~8 약을 먹을 것

9~12 구급차가 필요

13~16 입원이 필요

17~20 바로 수혈 수술

**33. 사춘기의 변화와 결혼**

포인트

사춘기는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다. 신체의 성장이 선행되고 정신면의 성장이 그것을 겨우겨우 따라잡으려고 한다. 일반적인 가치간과 가정윤리 하에서 이성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진다. 사춘기는 아름답게 만발한 무지개 빛 꽃에 꿀벌이 날아드는 것과 같다. 심신이 모두 완전히 성숙한 남성과 여성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연결되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지만 그만큼 고중한 시기인 만큼, 만약 탈선하게 되면 큰일이 되는 것도 이 시기다. 그러므로 청소년 문제가 큰 문제의 하나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본문

당신의 사춘기 만족도는?

•해당하는 부분에 O를 해 주세요.

1. 사춘기는 즐거운 추억이 더 많다.

2. 수험전쟁은 정말 괴로웠다.

3. 사춘기 시절 친구와 지금도 만나는 경우가 많다.

4. 이성과 함께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싶었다.

5. 텔레비전의 채널 다툼을 자주 했다.

6. 별 것 아닌 걸로 부모에게 반항했다.

7. 러브레터를 쓴 적이 있다.

8. 책을 많이 읽었다.

9.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생가했다.

10. 사춘기에 술을 마신 적이 있다.

11. 연예인 사진을 많이 모았다.

12. 공중목욕탕에 가는 것이 조금 부끄러웠다.

13. 데이트 해 본 적이 있다.

14. 영화의 키스 신을 보고 흥분했다.

15. 짝사랑 상대가 있었다.

16. 이성 친구와 무리 지어 자주 놀았다.

17. 초콜릿을 많이 먹었다.

18. 사춘기를 보낸 거리가 그립다.

19. 야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

20. 1년 선배가 굉장히 어른으로 보였다.

진단결과

O의 수 사춘기 만족도

1~4 철학적 무감동파

5~8 지적 이성파

9~12 정서적 감동파

13~16 낭만적 도취파

17~20 정렬적 행동파

**34. 강하고 씩씩한 생활 철학**

포인트

일상생활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한대로 흘러갈 턱이 없다. 싫어도 여러모로 참아야 될 일도 있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도 많지만 그런 때야말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한국판 「괜찮아 정신」. 이것이야말로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강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철학이다. 당신도 언제까지나 질질 짜지 말고, 배짱 좋게 살아갈 철학을 몸에 새기자.

본문

당신의 괜찮아 지수는?

•해당하는 부분에 O를 해 주세요.

1. 커피나 수프에 작은 벌레가 들어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2. 방에 곰팡이가 슬어도 신경 쓰이지 않는다.

3. 술을 마셔도 취하지만 않았다면 운전한다.

4. 화장실 냄새가 지독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볼일을 본다.

5. 약속에 늦어도 모른 척한다.

6. 안개비 정도라면 우산은 쓰지 않는다.

7. 가능한 한 사람을 이용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8. 반찬이 김치 뿐이라도 숨기지 않고 도시락을 먹는다.

9. 노인이나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자리는 양보하지 않는다.

10. 요리에 머리카락이 들어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11. 친구 회사 창문이 열려 있어도 주의하지 않는다.

12. 돈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와 놀러간다.

13. 날씨가 수상해도 우산을 챙기지 않는다.

14. 계단에서 굴러도 부끄럽지 않다.

15. 싸운 후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다.

16. 사람으로 붐비는 거리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운다.

17. 아이는 아들이던 딸이던 상관 없다.

18. 겨울이라도 미니스커트를 입는다.

19. 부탁 받아도 필요 없는 물건은 사지 않는다.

20. 만원 엘리베이터에 뛰어들어 탄다.

진단결과

O의 수 괜찮아 지수

1~4 불투명 좌절파

5~8 결벽성 현실파

9~12 일반적 상식파

13~16 야심적 열중파

17~20 후안적(철면피) 무정파

**35. 본심이 깨우친 인격을 쌓자**

포인트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한 요령은 「GIVE AND TAKE」. 또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호렌소(ほうれんそう)」. 즉 「보고(ほうこく)•연락(れんらく)•상담(そうだん)」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 누구든 무상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게 되면, 본심이 깨우쳐져 은혜를 되갚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원만한 부부의 부인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이런 이유일지도 모른다. 우선 주자!

본문

당신의 인간관계만족도는?

•해당하는 부분에 O를 해 주세요.

1. 당신의 부모는 뭐든지 다 사준다.

2. 사람들이 길을 물어보는 일이 많다.

3. 아침은 누군가가 깨워준다.

4. 꽃을 사면 매일 잊지 않고 물을 준다.

5. 애인이 반드시 티켓을 사준다.

6. 매일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전화가 온다.

7. 남동생이나 여동생에게는 용돈을 잘 준다.

8. 일본어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다.

9. 가족을 잘 도와준다.

10. 농담을 하면 친구들이 잘 웃어준다.

11. 교통위반을 했는데 경찰이 용서해주었다.

12. 전철에서 다른 사람이 가방을 들어주었다.

13. 가족 안에서 무드 메이커이다.

14. 생일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선물을 준다.

15. 운동회 때, 모두가 격려해주었다.

16. 장을 볼 때, 깎아주는 경우가 많다.

17. 바흐의 곡이 마음을 안정시켜준다.

18. 외국인에게 길을 가르쳐 준 적이 있다.

19. 부모의 어깨를 주물러 준다.

20. 신뢰받고 있다는 느끼는 적이 있다.

진단결과

O의 수 괜찮아 지수

1~4 출세가 어렵다

5~8 오해 받기 쉽다

9~12 사람 사귀는 것이 능숙하다

13~16 사람 위에 선다

17~20 사장의 그릇

**36. 당신에게 맞는 일은 무엇?**

포인트

자신의 능력을 살릴 수 있으며, 또 그 재능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는다면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좋아하는 것이야말로 능숙해지는 지름길」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어떠한 일이라도 흥미를 가지고 하면 능숙해지는 법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 화가임과 동시에 뛰어난 과학자였다. 평범한 인간인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쫓을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한 가지 길을 통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장래를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당신의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성공을 빈다.

본문

직업 맞추기 게임

한국에 「스무고개」라는 게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3팀 이상 나누어 상대 팀의 직업을 맞춰 주세요. 질문은 21회까지 OK입니다. 용지를 나눠드릴 테니 재미있는 직업을 한 명당 세 개씩 적어 주세요. 그리고 팀이 상담해서 전원의 직업이 전해지면 시작입니다.

「우리 직업은 무엇일까요?」 우선 처음에 간단한 힌트를 말해주세요. 상대 팀의 질문에는 알기 쉽게 대답해 주세요. 신경이 한 게임입니다.

우리 직업은 무엇일까요?

A팀 B팀 C팀

■ 우리 직업은 지저분한 직업입니다.

□ 어디서 일을 합니까?

■ 역이나 길거리에서 일을 합니다.

□ 청소를 하는 사람입니까?

■ 아닙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 물건을 팔거나 합니까?

■ 아닙니다, 일을 하고 돈을 받습니다.

□ 남자만 하는 일입니까?

■ 아니오, 간혹 여성도 있습니다.

□ 구두닦이 아저씨입니까?

■ 딩동댕! 정답입니다! (웃음)

**37. 여뀌 먹는 벌레도 좋아서 먹는 것(**[**오이**](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C%98%A4%EC%9D%B4)**를** [**거꾸로**](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A%B1%B0%EA%BE%B8%EB%A1%9C)[**먹어도**](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B%A8%B9%EB%8B%A4) **제 멋) (1)**

포인트

「여뀌」는 마디풀과의 한해살이풀로 강변•습지에 자생, 여름•가을에 홍녹(紅緑)의 작은 꽃이 이삭모양으로 열린다. 줄기•잎은 맵고, 모종은 회에 곁들이는 야채용•식용. 「여뀌 먹는 벌레도 좋아서 먹는 것」이라는 속담은 매운 「여뀌」 잎도 좋다고 먹는 벌레도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온 말로,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물질문명 덕에,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개성 시대를 맞이하게 된 현대. 그건 그것대로 좋지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가치관을 목표로 서로 토론을 나누었으면 한다.

본문

토론①

A팀, B팀으로 나뉘어, 각각의 의견을 교환하고 선생님이 승패를 정합니다.

<A팀> <B팀>

1 여름이 좋은가? 겨울이 좋은가?

2 중매결혼이 좋은가? 연애결혼이 좋은가?

3 아들이 좋은가? 딸이 좋은가?

4 부자와의 결혼이 좋은가? 아니면 평범한 사람과의 결혼이 좋은가?

5 여성은 스커트가 좋은가? 바지가 좋은가?

6 큰 회사의 중역이 좋은가? 작은 회사의 사장이 좋은가?

7 유산은 아들에게 남기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좋은가?

**38. 여뀌 먹는 벌레도 좋아서 먹는 것(**[**오이**](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C%98%A4%EC%9D%B4)**를** [**거꾸로**](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A%B1%B0%EA%BE%B8%EB%A1%9C)[**먹어도**](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B%A8%B9%EB%8B%A4) **제 멋) (2)**

포인트

「여뀌」는 마디풀과의 한해살이풀로 강변•습지에 자생, 여름•가을에 홍녹(紅緑)의 작은 꽃이 이삭모양으로 열린다. 줄기•잎은 맵고, 모종은 회에 곁들이는 야채용•식용. 「여뀌 먹는 벌레도 좋아서 먹는 것」이라는 속담은 매운 「여뀌」 잎도 좋다고 먹는 벌레도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온 말로,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물질문명 덕에,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개성 시대를 맞이하게 된 현대. 그건 그것대로 좋지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가치관을 목표로 서로 토론을 나누었으면 한다.

본문

토론②

A팀, B팀으로 나뉘어, 각각의 의견을 교환하고 선생님이 승패를 정합니다.

<A팀> <B팀>

1 한국인은 친절한가? 그렇지 않은가?

2 결혼식은 성대하게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검소하게 하는 것이 좋은가?

3 남자도 화장하는 것이 좋은가? 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

4 대머리는 가발을 쓰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가 좋은가?

5 아픈 것이 참을 수 있나? 아니면 가려운 것이 참을 수 있나?

6 산에서 사는 것이 좋은가? 해변에서 사는 것이 좋은가?

7 대통령이 좋은가? 공사판 막벌이가 좋은가?

**39 듣기 실력을 시험해보자 (1)**

포인트

어학 공부의 세 기둥을 꼽자면 독해력과 회화력, 그리고 청해력을 익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독해는 잘 하고, 어느 정도 일상회화도 잘 하는데, 듣기만 했다 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없다며 자신을 잃는 사람이 많다. 그것은 외국어를 아기 때부터 귀로 익힌 것이 아니라, 활자를 통하여 눈으로 익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야구 게임」으로 당신의 듣기 실력을 시험해 보자! 질문은 정치•경제•문화•철학•종교 등 이것만은 알아두었으면 하는 교양문제를 선발했다.

본문

야구 게임①

•규칙 : 두 팀으로 나뉘어 가위바위보로 선공, 후공을 정합니다. 대표로 투수가 질문 카드를 선택하여 출제, 우선 상태 팀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정답이면 주사위를 던진 후 지시에 따르고, 대답하지 못하면 1아웃. 다음에 아군 팀이 정답을 맞추면 베이스에 있는 선수를 한 명 아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시 : 주사위 수

1=1루타 / 2=2루타 / 3=3루타 / 4=홈런 / 5=번트(본인은 아웃) / 6=사구

1. 비틀즈 멤버 4명의 이름은?

2. 12지에서 「닭」의 다음은?

3.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은?

4. 어린이날은 몇월 며칠?

5. 부부 사이에서 비밀의 돈이란?

6. 한라산의 높이는 몇 m?

7. 쇼와의 다음, 현재 연호는?

8. 「노인과 바다」는 누구의 작품?

9. 마라톤의 거리는 몇 km?

10. 볼트는 무엇의 단위인가?

11. CO2란 무엇인가?

12. 콩 뿌리기를 하는 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3. 제야의 종은 몇 번 울리나?

14. 빛의 삼원색이란 어떤 색이 세 개인가?

15. 일본의 천엔짜리 지폐의 인물은 누구인가?

16. 올림픽의 오륜의 색은?

17. 벚꽃 고기는 어떤 동물의 고기?

18. 단풍이란 무슨 고기를 말하는가?

19. 금요일의 4일 전은 무슨 요일?

20. 국련(UN)은 무엇의 약자?

21. 원자폭탄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어디에 떨어졌나?

22. 북극, 남극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빛의 현상은?

23. 전철에서 노인 등이 앉는 자리를 뭐라고 하는가?

24. 일본의 소비세는 현재 몇 %인가?

25. 1972년, 일본에 반환된 것은 무슨 현?

26. 일본에서 가장 많은 성은?

27. 7월의 선물은 오츄겐, 그럼 12월은 무엇?

28. 「노르웨이의 숲」을 쓴 작가는 누구?

29.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5개국은?

30. 일본의 최북단에 있는 도도부현은?

31. 여름 복날 중 소의 날에 먹는 것은 무엇?

32. 부부가 결혼하고 7년째에 하는 축하식은?

33. 결혼반지는 다이아몬드, 또는 무엇을 선물하나?

34. 2000년 3월 소니가 발매한 게임기는?

35. 사츠키와 메이가 주인공인 애니메이션은?

36. 맥주병은 왜 갈색인가?

37. 스모 선수가 잘 먹는 요리는?

38. 태양계 행성 중 지구와 목성 사이에 있는 것은?

39. 99번 선에 실패한 주인공이 나오는 드라마는?

40. 복싱에서 가장 가벼운 체급은 무엇?

**40 듣기 실력을 시험해보자 (2)**

포인트

어학 공부의 세 기둥을 꼽자면 독해력과 회화력, 그리고 청해력을 익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독해는 잘 하고, 어느 정도 일상회화도 잘 하는데, 듣기만 했다 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없다며 자신을 잃는 사람이 많다. 그것은 외국어를 아기 때부터 귀로 익힌 것이 아니라, 활자를 통하여 눈으로 익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야구 게임」으로 당신의 듣기 실력을 시험해 보자! 질문은 정치•경제•문화•철학•종교 등 이것만은 알아두었으면 하는 교양문제를 선발했다.

본문

야구 게임②

•규칙 : 두 팀으로 나뉘어 가위바위보로 선공, 후공을 정합니다. 대표로 투수가 질문 카드를 선택하여 출제, 우선 상태 팀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정답이면 주사위를 던진 후 지시에 따르고, 대답하지 못하면 1아웃. 다음에 아군 팀이 정답을 맞추면 베이스에 있는 선수를 한 명 아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시 : 주사위 수

1=1루타 / 2=2루타 / 3=3루타 / 4=홈런 / 5=번트(본인은 아웃) / 6=사구

1. 사자는 무슨 과 동물인가?

2. 고래는 어류인가?

3. 「설국」을 쓴 것은 누구?

4. 일본에서 가장 넓은 호수는?

5. 7월 7일의 축제를 무엇이라고 하나?

6. 후지산의 높이는 약 몇 m?

7.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은?

8. 일본의 국기는 무엇?

9. 8월 15일은 일본에서는 무슨 날?

10. 여권과 비자의 차이는?

11. 명화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은?

12. 대나무를 먹는 중국의 동물은?

13. 게임보이는 어느 회사의 제품?

14. 미만과 이하의 차이는 무엇?

15. SOHO는 무엇의 약자?

16. 스노보는 무엇의 약자?

17. 일본의 맥주 회사를 3개 말하시오.

18. 음식 쓰레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9. 12지에서 말 다음은?

20. 농약을 쓰지 않는 농업이란?

21. 후지모리 씨는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었나?

22. 매년 여름에 일본은 습격하는 열대성저기압이란?

23. 프랑스 요리의 「에스카르고」란 무슨 요리?

24. 로미오와 줄리엣은 누가 쓴 작품?

25. 베토벤은 어느 나라 사람?

26. 테마파크 TDL이란 무엇의 약자?

27. 오미소카에 먹는 국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28. 6월에 비가 자주 오는 계절을 뭐라고 하는가?

29. 야구는 어느 나라에서 시작되었나?

30.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보고 아는 색은?

31. 한국에서는 철인 레이스.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나?

32. 인도에서 신성시되고 있는 동물은?

33. 이탈리아에 있는 기울어있는 탑의 이름은?

34. 거짓말을 해서 코가 길어진 동화의 주인공은?

35. 연필로 쓴 글씨를 지우는 것은?

36. 일본 프로 야구 팀을 3개 이상 말하시오.

37. 정규 직장에 들어가지 않고 아르바이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38. 매년 5월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영화제는?

39. 혈액 중의 당분이 만성적으로 증가하는 병은?

40. 모래사장에서 하는 배구를 뭐라고 하는가?